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金美淑

본 연구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회 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세의 증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및 교회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교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 예산 확충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회귀분석을 하여 유의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교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향력의 순서대로 교회의 사회복지예산, 교인수,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교회소재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의 충분성, 교회개방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 정도, 교회와 타 기관과의 협력정도, 사회복지에 위한 인력의 충분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교회사회복지활동은 교세의 증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복지 예산증액, 교회인력활용, 교인의 인식제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농촌 교회 지원, 교회시설활용, 지역주민에 교회 개방 등을 제안하였다. 이때 한국 교회는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교회성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요용어: 교회사회복지활동, 민간복지,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李善雨 責任研究員과 李賢珠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社會福祉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公共機關과 民間機關의 組織化된 活動을 의미한다(Hefferman, Schuttleworth & Ambrosino, 1992). 산업화가 성숙화 되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민간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충족할 수 없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補充的인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 복지에 대한 감축을 초래한 福祉國家의 危機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복지재정이 삭감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福祉多元主義(Welfare Pluralism) 혹은 福祉混合(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이유로 최근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민지, 해방, 전쟁 등으로 인한 빈곤, 고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선교단체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인조단체(외원단체)의 개입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최원규, 1996).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1970년대 경제적 부흥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고수하고 민간이 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 이념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였다. 문민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정부의 기구를 축소하려 하였고, 최근에는 經濟危機를 맞게 됨에 따라 공공이 증가하는 福祉欲求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참여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民間 非營利機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宗教機關이다. 종교계와 같은 비영리기관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Bendick, JR. 1989).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中産層을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가톨릭에서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인 基本 構造體系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행 복지활동의 전문성 및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김인숙 외, 1998). 가톨릭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997년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불교계는 현재 불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신교는 교단별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에 대한 파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교단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술적인 현황 파악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석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계 중에서 개신교 교회의 대표적인 7개 교단을 선정하여 이 교단소속 교회의 社會福祉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회의 福祉參與 活性化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유자원은 많으나 복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改新教 教會를 對象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알아보았고, 사회복지활동과 교회의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교세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II. 教會의 社會福祉參與에 대한 理論的 考察

1. 民間의 社會福祉活動 參與 背景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經濟的 安全을 보장하고 社會的인 平等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개인은 자생력을 강화할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사고, 질병, 노령 같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김태성·성경룡, 1993).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서구에서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교회 같은 단체가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노동자문제, 빈곤문제 등이 확산되자 국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복지공급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Hecl, 1982). OECD회원국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하였는데 반해, 1975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오히려 支出費用 增加率이 4%로 하락하였다(OECD, 1981). 이러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福祉國家의 危機'라고 부른다(Mishra, 1984; OECD, 1981).

서구복지국가에서는 경제불황으로 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서 국가의 공공지출 및 역할을 축소하고 市場과 家族 및 非營利機關을 복지의 生産 및 供給主體로 삼는 民營化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민간단체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초기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외원기관이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하

었다. 외원기관의 주요활동은 구한말시대부터 선교를 위한 복지사업을 제공 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서 외원기관의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의 주요 담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과 민간단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잔여적인 복지공급자의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福祉模型을 수립 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均衡的 福祉國家를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균형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福祉共同體를 구축토록 했다¹⁾(복지개혁백서 편찬위원회, 1997).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國家-市場-市民社會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오정수, 1998). 즉, 문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의 복지참여인 민영화를 도입하였다(이선우, 1998).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이선우, 1998).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

1) 이 밖에 중앙정부의 복지기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인,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민간복지기구로는 각 종교기관, 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인력은행 등을 들 수 있다(권순원, 1998). 이들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救貧 또는 慈善活動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권순원, 1998).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기구 중의 하나인 종교기관도 국가가 신속하게 담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 및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종교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사회복지활동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목회자 및 교인의 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및 복지욕구 파악, 사회복지활동 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때 보다 활발하게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복지국가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요구되고 있으므로, 종교계는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2. 教會의 社會福祉活動

가.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의 概念 및 歷史

우리 나라에는 宗教人口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7%가 종교인으로 이 중 佛敎가 48.8%, 基督教가 36.4%,

가톨릭이 11.8%로 전체 종교인구의 97%를 차지한다(통계청, 1998). 종교계는 人的資源, 施設資源, 財政資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는 貧民救濟 및 社會奉仕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이란 교회라는 조직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Garland, 1993). 지역에 세워진 개(個)교회(congregational)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교회들의 연합체인 교단적(denominational)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 그리고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는 교회연합적(ecumenical) 프로그램 등이 모두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속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개신교는 전과 초기부터 社會福祉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항이전 조선시대부터 선교의 목적으로 來韓한 기독교 선교단체(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가 경제적 부흥이 있는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서구의 사회사업을 들여왔다(최원규, 1996).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동안에는 이들은 주로 자선사업과 박애사업을 소개하면서 주변적인 사회문제인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복지대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이후에는 시설구호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사업이 시설중심의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문 사회사업방법론을 도입하여 실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고 대신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대신하였다²⁾.

이와 같이 개신교는 한국의 사회복지를 주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사회복지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태동하였고

2) 그러나 한국의 민간사회사업 기관들은 자생력이 약해서 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전에 외원기관이 담당해 왔던 사회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최원규, 1996).

발전하여 온 것이다(민경원, 1999). 교회는 교인뿐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실제 생활속에서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소개되었고 특히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였다(민경원, 1999). 특히 개신교는 학교 및 성경구락부 설치를 통한 교육사업, 광혜원, 계중원, 평양연합기독봉원, 세브란스 병원 등을 통한 의료사업, 홀트아동복지회, 기독교 아동복지회, 세계기독교 선명회, 한국기독교 가정복지회 등을 통한 사회사업, 문맹퇴치사업 등의 사회계몽사업,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제사업, 일제하에서의 민족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성장주도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민경원, 1999).

그러나 국가경제가 향상되고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1970년대 이후로부터는 교회의 풍부한 자원과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복지활동에는 무관심하였다. 경제성장기인 '70년대는 주로 근로자들의 후생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교회의 대형화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제에는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教會 社會福祉活動의 問題點

선교초기부터 경제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해 온 대부분의 교회들은 1970년대 이후에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사회봉사나 구제를 위해서는 낮은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다. 이원규(1996)는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構造的 要因들은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및 개인구원적 신앙 중심성, 선교에 대한 좁은 인식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선교로 보지 못한 점, 개체교회 중심주의 등을 들었다. 개신교 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 및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회교인들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생활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복지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또한 선교를 강조하여 전도의 성

과는 컸지만 선교의 내용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복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이다. 또한 개교회 중심 주의로 인하여 교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주로 개체교회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은 등한시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든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이 교회로 하여금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이나 여유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맥을 같이하여 개신교 대표 교단의 하나인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박창빈(1992) 사회부 총무도 동 교단의 사회봉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個教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교회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意識, 사회봉사에 대한 예산배정을 포함한 교회의 財政構造 문제, 教會施設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박창빈, 1992). 정무성(1999)은 한국 종교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豫算編成의 소극성, 사업의 非專門性, 傳達體系의 비체계성 등을 지적하였다.

교회의 양적 팽창에 비해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고 나아가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치준(1995)은 한국 교회가 그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개신교 교회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여 물질적으로 극빈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할 때,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선교초기부터 개신교는 교육, 의료, 구제 등 어려운 지역주민을 돕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개교회 중심의 팽창주의에 주력한 나머지 어려운 이웃에는 무관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개교회의 목사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이 교회예산의 10% 미만에 이르고 있어 형식위주의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복지활동도 다양하지 않고 시설중심의 활동이고, 일시적인 구호만

을 위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문제를 안고 있다(서선희, 1997).

다.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活性化에 대한 文獻考察 및 假說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이 주류를 이루었다(한국 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1990; 김동배, 1994; 이계자, 1997; 서선희, 1997; 염순녀, 1998; 민경원, 1999 등). 기존의 연구들은 교단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인적자원, 시설자원, 조직자원을 소개하고 있고, 교회사회복지 예산비율, 목회자 및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지도,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사회복지활동 시 애로사항,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表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교회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아울러 교세의 변화와 연관된 요인을 사회복지측면에서 발견하여 사회복지활성화가 교회의 외적 공신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교세)에도 기여함을 검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추정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그 동안의 연구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계자, 1997; 서선희, 1997; 염순녀, 1998; 민경원, 1999). 목회자가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많은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교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사회복지활동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表 1〉 教會 社會福祉活動 活性化에 관한 研究 結果

연구자	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
김동배(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성 제고 - 사회복지 예산 증액 - 지교회 및 복지기관과 연합
이계자(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와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 교회의 봉사활동 강화 및 교역자의 자질 향상 -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 교회를 통한 사회교육 추진
서선희(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활용 및 교육 - 재정 확보 - 교회개방 - 지역주민의 욕구 파악 - 사회복지전담기구 마련
염순녀(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의 인식제고 -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민경원(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간의 협조 - 목회자의 인식제고 - 지역사회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 인적 시설자원의 과다보다는 교회와 교인의 인식과 지지가 중요 - 사회봉사 전문체계를 조직 -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목회자와 자원봉사자 양성 배치

을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민경원, 1999). 한국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한 인적, 시설, 재정 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활용할 의지가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회자의 인식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호응도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가 많다(민경원, 1999).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의 인식과 호응도가 높아야 교회내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이끌 지도자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민경원, 1999). 교회에서 사회복지

지를 누가 담당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게 되면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인 교회지도자의 93%가 “사회봉사 전담 직원이 교회에 없다”고 응답하여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이 결여됨을 시사하고 있다. 교회의 자원봉사의 경우에 자원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으면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미숙 외, 1998). 자원봉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가 담당하게 될 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염순녀, 1998).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동배, 1994). 교회예산의 10% 정도만을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해도 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가 되는데, 이는 1996년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지출된 액수인 3698억원에 가까운 규모이다(김성한, 1998). 그런데 실제로 교회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10% 이하인 평균 약 6~7%에 불과하다(이삼열, 1992). 개신교 교회들은 교회 재정을 주로 개교회 확장이나 교회성장에 투입하여 사회를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산의 일정비율은 이웃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때 사회복지활동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경원(1999)은 교인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기 쉽기 때문에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았다. 소규모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할 때 효율적이며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민경원, 1999). 교세가 적은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뿐 아니라 부대시설, 재정 등도 열악함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에는 노인, 빈민, 장애인 등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한 교회에 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교세자체보다는 목회자와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의 시설과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교인수,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 및 인력정도를 통제하였다.

또한 교회 내에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서선희, 1997). 교회는 예배시설인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주차장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부대시설인 유치원이나 선교원 등이 있는 교회도 있다 교회의 시설과 자원이 교인에게 뿐 아니라 비교인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때 교회에의 접근도가 제고되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이용하는 대상자도 증가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활동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교회간의 연합과 교회와 지역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김동배, 1994; 이계자, 1997; 민경원, 1999). 우리 나라의 교회들은 개교회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사회복지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김동배, 1994). 교회간의 연합뿐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연합할 때 주민의 교회의 시설 이용 문제나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다(이계자, 1997).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때 교회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교회가 외부로 홍보되기 때문에 교인수가 증가할 것이다. 즉,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교인수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할 때 교인수가 증가하고 교인수가 증가하는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간접

적인 효과를 얻어 교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세, 교회의 시설 및 자원, 교회소재지를 통제했을 때,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가 유무, 사회복지예산, 타교회와의 연계, 지역기관과의 연계는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성과 교인수의 증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교인수 증감과 주민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標本

본 연구를 위해서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母集團은 한국의 개신교 교회 전체로 본 조사에서는 교세(교인수)가 큰 교단과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교단의 교세는 전 교세의 약 50% 차지하고 있다(表 2 참조). 한국개신교의 대표적인 7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성결교회(예수교 및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합함), 구세군 대한 본영의 교회를 標本抽出하여 교회의 담임목사³⁾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標本數는 1,531개 교회이고, 구세군 대한본영을 제외한 6개 교단의

3) 응답자 중 3명은 목회자가 아닌 장로와 권사였으나, 그 수가 적어서 분석에 포함시켰다(表 5 참조).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경우 교세(敎人數)에 비례하여 전체 한국교회 대비 각 교단의 교세 비율을 추계 한 후, 이를 다시 6개 교단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表 2 참조). 구세군 대한본영의 경우 전체 교회 대비 구세군의 교세 비중은 0.7%이나, 이를 본 조사에서는 3.3%로 over-sampling 하였다. 이는 구세군이 교세에 비해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2> 敎團別 調查對象 敎會 標本數

(단위: 개소, %)

교 단	교인수 ²⁾ (교회수)	전교인 대비 비중	표본수	7개교단 대비비중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2,158,597(5,447)	14.3	428	28.0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93,967(5,330)	13.9	415	27.1
③ 대한기독교장로회	340,590(1,379)	2.3	70	4.6
④ 기독교대한감리회	1,277,177(4,114)	8.5	253	16.5
⑤ 기독교한국침례회	702,000(1,800)	4.7	139	9.1
⑥ 대한성결교회 ¹⁾	884,670(3,224)	5.9	176	11.5
⑦ 구세군 대한본영	103,860(223)	0.7	50	3.3
소 계	7,572,971(20,698)	50.3	1,531	100.0
기타 교단(조사에서 제외됨)	7,482,638(27,558)	49.7	-	-
전 체	15,055,609(48,256)	100.0	1,531	100.0

註: 1) 대한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를 합친 것임.

2) 우리 나라 개신교에는 200여 개가 넘는 교단이 있음. 이 중 교세가 큰 교단이나 복지활동이 활발한 교단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

資料: 한국 종교사회연구소, 『종교연감』, 1994.

標本抽出은 7개 교단 교회주소록을 이용하여 교단별로 亂數表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 郵便調查를 실시하였는데, 應答率을 높이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전화로 독려하여 응답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表 3>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평균 27.6%이었다. 7개 교단에 시무하는 1,531명의 목회자 중 50명으로부터는 주소지 불명으로 설문지가 반송되었고, 나머지 1,481명 중에서

〈表 3〉 教團別 調査對象 教會 最終標本數 및 應答率

(단위: 개소, %)

교 단	표본수	반응	최종 표본수	응답수	응답률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428	14	414	99	23.9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415	13	402	126	33.3
③ 대한기독교장로회	70	1	69	18	26.1
④ 기독교대한감리회	253	7	246	69	28.0
⑤ 기독교한국침례회	139	11	128	31	24.2
⑥ 대한성결교회	176	4	172	50	29.1
⑦ 구세군 대한본영	50	0	50	17	34.0
진 체	1,531	50	1,481	410	27.6

410명이 본 조사에 응하였다. 교단별 응답률은 교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응답률이 각각 23.9%, 24.2%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과 구세군 대한본영의 응답률은 각각 33.3%와 3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목회자들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목회자들로 추정된다. 조사에 응한 목회자와 거부한 목회자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는 의도되지 않았던 조사대상 선정상의 편의(selection bias)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2. 分析方法 및 變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10개의 요인을 獨立變數로 하여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을 從屬變數로 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낸다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1=매우 저조, 2=저조, 3=그저 그림, 4=활발, 5=매우 활발).

독립변수는 총 7개로 목회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교회 교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권장정도(1=반대하고 있다, 2=별로 권장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권장하고 있다, 5=매우 권장하고 있다)를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敎人의 인식은 적당한 변수가 없어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의 呼應度로 대체하였다. 이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이다.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는 더미코드화 하여 없다=0, 있다=1로 하였다.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교회예산을 100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에 지출한 예산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교회개방여부는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에게 교회를 개방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변수로 더미코드화 하여 비개방=0, 개방=1로 하였다. 지역내의 타교회와의 협력정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하여 1=매우 소원한 관계, 2=약간 소원한 관계, 3=부분적인 협조관계, 4=긴밀한 협조관계로 하였다. 지역내의 다른 기관(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과의 관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아무 관계없음, 2=심한 갈등관계, 3=약간 불편한 관계, 4=부분적인 협조관계, 5=긴밀한 협조관계로 하였다.

통제변수 중 교인수는 조사 당시를 기점으로 지난 주와 2주전 출석교인수의 평균으로 하였다. 교인수 분포는 6에서 30,007로 광범위하고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서 로그화 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 충분도는 5점 척도로 1=매우 부족하다, 2=부족하다, 3=보통이다, 4=충분하다, 5=매우 충분하다로 측정하였고,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력 충분도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매우 부족하다, 2=부족하다, 3=보통이다, 4=충분하다, 5=매우 충분하다로 하였다. 교회의 소재지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합하여 도시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지역으로 하여 더미코드화 하였다(0=군지역, 1=도시).

사회복지활동 활발정도와 교인수 증감 및 교인수 증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교회 사회복지활동과 지역주민

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호응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교인수 증감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줄고 있다, 2=변화가 거의 없다, 3=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呼應度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로 하였다.

IV. 結果分析

1. 調査對象 教會 및 牧會者의 特性

조사대상교회의 一般的 特性은 <表 4>에 제시되어 있다. 교회의 位置에서 있어서는 조사대상 교회들은 대도시와 중도시, 군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군지역의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어·광업지역 등이었다. 소수의 교회만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회가 소재한 지역주민의 社會經濟的 特性은 중하층이 가장 많았고, 하층, 중상층의 순이었다. 상층지역에 소재한 교회는 전체의 1.2%(5개 교회)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敎團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30.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24.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의 순이었다.

교회의 出席敎人數別로는 50명 이하의 교회가 45.4%로 가장 많았고, 51명에서 100명 이하의 교회가 19.8%, 101명에서 300명 이하의 교회가 17.5%, 301명에서 500명 이하의 교회가 9.6%였다. 출석교인이 500명 이상인 교회는 7.7%에 불과하다. 즉, 전체의 65.2%에 해당하는 교회는 출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表 4> 調査對象 教會 特性

(단위: %, 명)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전 체	410	100.0
교회위치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33	32.4
중도시(시지역)	105	25.6
군지역(군·읍·면지역)	172	42.0
교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99	24.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26	30.7
한국기독교장로회	18	4.4
기독교대한감리회	69	16.8
기독교한국침례회	31	7.6
대한성결교회	50	12.2
구세군 대한본영	17	4.1
교회 출석교인수		
50명 이하	184	45.4
51 ~ 100명	80	19.8
101 ~ 300명	71	17.5
301 ~ 500명	39	9.6
501 ~ 1,000명	18	4.5
1,001 ~ 2,000명	8	2.0
2,001명 이상	5	1.2
무응답	5	-

석교인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였다.

<表 5>에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性別을 보면 남자가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4.1%에 불과하였다. 年齡平均은 47.1세(표준편차 9.73)로 나타났으며, 50대가 38.4%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도 34.5%로 나타났으며, 30대는 25.6%로 목회자들의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의 職分을 보면 목사인 경우가 90.2%이었고, 부목사나 전도사는 9.1%로 소수로 나타났다.

〈表 5〉 調査對象 牧會者의 特性

(단위: %, 명)

구 분	빈도	백분율
전체	410	100.0
성별		
남자	393	95.9
여자	17	4.1
연령별		
30대	6	1.5
40대	104	25.6
50대	156	38.4
60대 이상	140	34.5
무응답	4	-
직분별		
목사	365	90.2
부목사/전도사	37	9.1
장로	1	0.2
권사	2	0.5
무응답	5	-

2. 變數들의 分布 및 相關關係

〈表 6〉에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적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활동 활발정도는 평균 2.63으로 중간점수인 3점 이하로 나타나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회자들의 자원봉사 권장 정도는 평균 4.14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의 인식은 평균이 2.87로 중간점수인 3점을 약간 밑돌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가 있는 교회는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 평균은 9.66%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 교회는 60%로 과반수 이상이 지역주민에게 주중에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의 타교회와의 협력정도는 평균 2.24로 나타나 약간 소원하거나 부분적인 협력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지역내의 공공기관과의 관계

는 평균 2.86으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

교인수 평균은 약 290명이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하기에 시설 및 인력이 충분하기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변수 모두 평균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2점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교회소재지는 전체의 60%가 도시 40%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6> 主要 變數의 記述的 分析 結果(N=282)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활동 활발정도	2.64	1.00
목회자 인식	4.14	0.80
교인 호응도	2.87	0.96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0.08	0.28
사회복지예산비율	9.66	12.45
교회개방 여부	0.60	0.49
타교회와의 연계	2.24	0.93
지역단체와의 연계	2.86	1.55
교인수	290.94	1774.13
(로그화한 값)	(4.45)	(1.28)
시설충분도	1.83	0.85
인력충분도	1.79	0.76
교회소재지	0.61	0.49
신도수 증감	2.26	0.70
주민 호응도	2.93	1.01

교회의 신도수 증감은 평균 2.2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수가 변함이 없거나 약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중간점수에 가까운 2.93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보통 정도의 호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에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상관관계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종속변수인 사회복지활동정도와 독립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하였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7〉 主要變數의 相關關係

	사회복지 활발성	목회자 인식	교인 호응도	사회복지 전문가 유무	사회 복지 예산	교회 개방	타교회와 협력	지역기관 과 협력	교인수	시설 충분도	인력 충분도
목회자 인식	.260***										
교인인식	.426*	.258***									
사회복지 전문가 유무	.261***	.121*	.030								
사회복지 예산	.319***	.122*	.291***	.049							
교회개방	.225***	.138**	.171**	.225***	.167**						
타교회와 협력	.142**	.193***	.187***	.153**	.083	.174**					
지역기관 협력	.244***	.157**	.150**	.208***	.083	-.071	.224**				
교인수	.385***	.099*	.213***	.095	-.050	.012	.124	.315***			
시설 충분도	.288***	.083	.173***	.091	.078	-.073	.097	.182*	.211***		
인력 충분도	.365***	.167**	.345***	.069	.073	-.045	.182	.231**	.467***	.467***	
교회 소재지	.270***	.071	.175**	.038	-.013	.072	-.111	.069*	.329***	-.051	.166**

*** p< .001, ** p< .01, * p< .05

3. 教會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表 8>에 제시되어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호응도),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사회복지예산 비율, 교회개방여부, 교인수, 사회복지활동에서 시설충분도, 교회소재지이었다.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교회 교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呼應度)이 높을수록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교회내의 社會福祉 專門家 유무가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복지전문가가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책정한 교회가 적게 책정한 교회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사회복지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통계변수 중 교인수는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교인수가 많은 교회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가 적은 교회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다고 목회자가 인식하고 있을수록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教會의 位置로서 郡지역 교회에 비해 도시에 위치한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사회복지활동 예산이었고($\beta=.222$), 그 다음은 교인수($\beta=.218$), 교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beta=.197$), 사회복지전문가 유무($\beta=.163$), 교회소재지($\beta=.156$),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교회내 시설의 충분성($\beta=.140$), 교회개방여부($\beta=.106$)의 순이었다.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교회와의 협력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력을 충분성도 사회복지활동 활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사회복지활동 활발성의 분산(variance)을 약 44% 설명하고 있다(R^2).

<表 8> 教會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목회자 인식	.117	.061	.093
교인의 인식	.206	.055	.197***
사회복지전문가 유무(무=0)	.585	.174	.163***
사회복지예산비율	.001	.004	.222***
교회개방(비개방=0)	.217	.099	.106*
타교회와의 협력	-.001	.053	-.014
지역기관과의 협력	.001	.053	.026
교인수	.170	.033	.218***
시설 충분도	.166	.044	.140**
인력 충분도	.007	.062	.053
교회소재지(군지역=0)	.321	.103	.156**
상수	.252	.345	
F 값		18.959***	
사례수		282	
R^2		.436	
Adjusted R^2		.413	

*** $p < .001$, ** $p < .01$, * $p < .05$

4. 教會 社會福祉活動과 教人數 增減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 활발성 정도와 최근 3년간 교회의 信徒數의 變化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교인수의 증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교인수 증감과 사회복지활동발생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한 추세에 있지만,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 신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한 교회들은 신도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表 9 참조). 이로써 사회복지가 활발하게 되면 교회 밖의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성장에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가 지지되었다.

〈表 9〉 社會福祉 活潑性과 教人數 增減과의 關係

(단위: %, 명)

사회복지활동	신도수 감소	신도수 동일	신도수 증가	전체
저조	79.3	57.5	44.8	55.4(224)
보통	8.6	26.0	24.2	22.8(92)
활발	12.1	16.6	30.9	21.8(88)
계	100.0	100.0	100.0	100.0
(N)	(58)	(181)	(165)	(404)

$\chi^2=26.576^{***}$

*** p< .001

다음에는 地域住民의 社會福祉 呼應度와 교인수 증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表 10 참조). 그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과 교인수의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주민이 지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호응을 보일 때 교회가 간접적으로 소개되어 교인수가 증가하게 되고, 교인수가 증가하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물적·인적 자원이 증가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기반이 조성되는데, 사회

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교인수의 증감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 호응도, 양자는 상호 상승적인 관계를 갖고서 서로에게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表 10〉 教人數 增減과 教人 및 住民의 社會福祉 呼應度와의 關係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 호응도	
교인수 증감	.226***

*** p < 0.001, 사례수: 352

V. 論議 및 結論

社會福祉活動 活潑性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영향력의 순서대로 보면 사회복지예산, 교인수,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호응도,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교회의 소재지,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충분도, 교회개방여부로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내의 교세(신도수) 증감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신도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교세증감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과 교인수 증감은 정적인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것과 교인수 증가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김미숙, 1999)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출되는 豫算은

매우 열악하다. 조사대상 교회의 무려 76.4%의 교회가 예산의 10% 미만만을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87.6%가 사회복지 사업비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아 자연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활동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내의 재정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소한 사회복지예산을 교회 총 예산의 10%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실천 의지와 교회 교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同時多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원하지만 자원의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세한 교회들은 주로 빈민지역에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부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과의 협력 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인수는 두 번째로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교인수가 적은 교회는 사회복지활동을 하기에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판명되었듯이 사회복지활동 활발성과 사회복지활동이 교인수의 증가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교인수가 적은 교회들은 적은 자원으로나마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간접적인 선교의 수단이 되어 교인수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은 자원으로부터라도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할 때 교회의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교회들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의 호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의의를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주책임자는 목회자들이다. 즉, 교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는 곧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인들에게 사회복지활동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의 참여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식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를 전담할 專門人力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회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목회자 양성이 시급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학이나 기관에서의 재교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목회와 사회복지활동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 간주하여 교회자원의 사회환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교회보다 활발하지 못한 편이므로 農·漁村 教會에 대한 支援이 필요하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도시 교회들은 老人과 貧民이 몰려있는 농·어촌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어촌교회들은 스스로 자립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세에 있어서

나 재정 면에서 매우 역부족인 상태이다. 특히 대도시의 대형교회들은 이러한 농·어촌 지역교회와 結緣을 맺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에 필요한 資源들을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군지역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보다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교회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시설면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교회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를 제공토록 한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 건물 및 부속건물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교회가 협소하거나 여건이 불리하여 사회복지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의 활동보다는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으로서 무료급식서비스, 환자방문 등 주로 교회의 인력을 활용하여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회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다. 즉, 지역주민에게 교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과감하게 개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회들은 교회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회내의 광고뿐 아니라 지역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알림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가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각 교회는 지역에서 해당 주민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교회내의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회 내의 활동에만 활용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도우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교회는 실추되고 있는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검증되었듯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는 교회의 내적인 성장과도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여 교회들은 보다 활

발하게 지역사회의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교회내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에의 호응도는 교세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인력의 충분성, 교회간의 협력이나 교회와 지역 기관과의 협력정도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측정도구(교인에 대한 자원봉사 권장정도)가 제한되어 있어 유의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인력의 충분성보다는 교인수가 사회복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데 교인의 절대수가 복지활동을 위한 인력 충분성보다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관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사회복지활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교회들은 매우 미약한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복지활동이 시작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내의 구조와 여건을 우선 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개신교 교회에 한정하였다. 우리 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불교의 사회복지활동도 함께 비교·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연구기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개신교 교회만으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세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을 비교하여 보다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현황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참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권순원,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pp.53~63.
-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 『교회사회봉사총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회부(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p.314~370.
-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미숙·김유경·김성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1998.
- 김성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복지 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서울: 한울, 1996, pp.82~107.
- 김인숙·최해경·이선우,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연수회 자료집, 1997.
- 김태성·성경룡,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민경원, 「교회사회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도시 교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박창빈,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장로교(예장통합)를 중심으로」,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p.263~276.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개혁』, 1997.
- 서선희, 「한국교회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염순녀,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 오정수,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pp.40~52.

教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

- 이계자,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이삼열(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p.9~34.
-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pp.46~81.
-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정무성, 「종교사회복지의 반성과 전망에 관한 토론」,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논평, 1999.
-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종교연감』, 1994.
- Bendick, Marc Jr. "Privatizing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 Idea to Be Taken Seriously"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97~120.
- Garland, Diana R., "Church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1993.
- Hecl, H., "Toward a New Welfare State?" in P. Flora and J. J. Heidenheimer(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2.
- Hefferman, J., Schuttleworth, G., and Ambrosino, R.,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An Introduction*, 2nd ed.,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2.
- Mishra, Ramesh,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Policies of Retrenchment and Maintena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Y.: Harvester Wheatsheaf, 1990.
- OECD, *The Welfare State in Crisis*, Paris, 1981.

Summary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Mees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Previous research utilized descriptive analysis. Research findings assume that major elements related with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pastors'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social workers roles, cooperation among local churches, and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is study utili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above hypothe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members in the church.

It h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church members' awareness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existence of social worker in the church, the location of the church(urban area or rural area), church facilities, and church openness to the local community. Meanwhile, the pastor's awareness o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ooperation among church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factor. It has also found tha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related with the growth of church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eviv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hurches should increase the social welfare budget, utilize church facilities for social welfare, raise church member's awareness on social welfare, hire social worker(s), assist urban churches, and open churches to the community. Through promoting the participation in more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Korean churches can regain the reputation which has faded recently.